[붙 임]

「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」
성과점검 및 확산 계획

2014. 5. 28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점검 배경 ····· 1

Ⅱ. 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 ····· 2

1. 기술창업촉진을 위한 창업플랫폼 확충 ·· 3

2. 자금조달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· 4

3. M&A 및 IPO 회수시장 활성화 ····· 6

4. 재도전 기회가 많은 환경 조성 ····· 8

Ⅲ. 벤처·창업 업계 및 전문가 평가 ····· 9

1. 설문조사 결과 ····· 9

2. 분야별 건의 ····· 11

Ⅳ. 향후 조치 계획 ····· 13

<첨부> 벤처창업 실태조사 결과 통계 / 15

Ⅰ. 점검 배경

□ 정부는 지난해 5월 **「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」**을 비롯하여 **벤처·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**

<이번 정부의 벤처·창업 활성화 관련 주요 대책>

대책명(발표일)	주요내용
①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('13.5.15)	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, 성장사다리펀드 조성, 기술혁신형 M&A 세제지원, 코넥스시장 신설 등
②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('13.9.5)	창업휴학제 도입(최대 8학기),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 확대, 대학생 창업 드림 CEO양성 등
③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('13.10.30)	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,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관련 법적근거 보강 및 전담기관 설치 등
④벤처창업대책 보완 방안('14.2.5) 등	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 선택 납부 허용, 엔젤 소득공제 확대(15백만원 이하 100%) 등
⑤M&A활성화 방안('14.3.6)	M&A 지원펀드 1조원 조성, 주식 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, 역삼각합병·삼각주식교환 도입 등
⑥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('14.3.6.)	국내 엑셀러레이터 글로벌 역량 강화, 성장단계·산업·지역별 특화 유도 등
⑦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 방안('14.3.19)	생애 全주기 기업가정신 교육, 고급 기술인력 창업 촉진, 창업보육 선진화, 창업인턴제 도입 등
⑧벤처창업 규제 개선 추진 방안('14.3.20)	창업지원업종 확대, 창업부담금 감면 확대, 공장 증설시 창업사업계획 승인, 회생절차 간소화 등
순기업상장 활성화 방안('14.4.15)	거래소 지배구조 개선, 질적심사 요건 간소화,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완화 등

□ 벤처·창업 정책 **추진 1년이 경과**됨에 따라 **생태계의 변화를 점검**하여 **미흡한 사항은 보완**하고 **성공사례는 확산**할 필요

○ **세제지원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법령**과 **펀드 투자 등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**되어 **평가가 다소 이른 시기**이긴 하나,

- 정책에 대한 **기대감, 旣 추진한 과제의 효과** 등을 **통계와 수요자 체감도** 등을 통해 분석

Ⅱ. 정책 추진 실적 및 성과

「창업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 /재도전」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**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**

벤처창업대책 추진 현황

□ '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'의 과제 중 **2개 과제는 국회 계류중**이고 나머지 과제는 **완료** 또는 **정상추진** 중

○ 계류법률은 '지주회사의 **증손회사 지분율 요건(100→50%) 완화**(공정거래법, 김종훈의원 발의)'와 '**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**(자본시장법, 신동우의원 발의)'을 위한 **법률**

□ 보완대책으로서 **스톡옵션 제도개선**(조세특례제한법,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), **엔젤 소득공제 추가확대**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 **등의 제도개선도 정상추진 중**

* 스톡옵션 제도개선(조세특례제한법 '14.2월 김학용의원 발의,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)

* 엔젤 소득공제 확대(조세특례제한법 '14.10월 국회 제출 예정)

1 (창업부문)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플랫폼 확충

□ **(실적) 창업사관학교** 등을 통해 **연간 3천여명**('12. 2,800여명→'13. 3,500여명)**의 우수 창업자**를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

* 창업사관학교(4개), 창업선도대학(18개), 스마트벤처창업학교(2개) 등

○ 특히, 이스라엘의 투자보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**「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」**을 도입('13.5)

* 지원 실적 : ('13) 15개 창업팀 → ('14 목표) 70개 창업팀, 5월기준 13개팀 발굴

[창업사례] 국내시장 선점 후 해외 서비스 시작

☞ '12년 창업한 K기업은 세계 최초로 영유아 보육 관련 스마트알림장 서비스를 시작하고, 본 사업의 지원(엔젤투자 : 5억원, R&D자금 : 2.5억원)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(미국, 호주, 중국 등 7개국 서비스 시작)

○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「창조경제타운」 개설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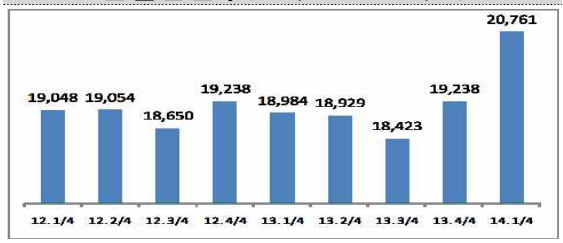
* 총 7,700여건의 아이디어 중 598건을 선별하여 멘토링, 권리화, 창업연계 등 지원

○ 금년에는 창업기획사 등 **우수 창업자 선별기능을 보유한 민간기관**을 활용하여 **기술창업자 발굴·육성(팀당 최대 10억원)** 추진

□ **(성과) 최근 창업활성화 분위기 확산**

○ '14년 1/4분기 **신설법인수**는 **최초 2만개(20,761개)를 돌파**하고 전년 동기(18,984개) 대비 **9.4% 증가**

<신설법인수(한국은행, 중기청)>



○ 또한, 대학의 **창업동아리(1,833개 → 2,949개)가 전년대비 61%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활성화 분위기**도 지속

구 분	'12년	'13년	'14년 5월	비고
창업특기생	6개대학 100명	7개대학 120명	13개대학 229명	91% 증
창업강좌	133개 대학 965개 강좌	135개 대학 1,051개 강좌	282개 대학 2,561개 강좌	144% 증
창업동아리	1,222개 동아리 18,027명 활동	1,833개 동아리 22,463명 활동	2,949개 동아리 29,583명 활동	61% 증

* 대학창업인프라 실태 전국조사 (중기청)

○ 다만, **고급 기술인력의 수적 증가**에 불구, **비중은 여전히 부족**

* 교수·연구원수 (명) : ('06) 1,738 → ('10) 2,181 → ('14.4) 2,303
* 교수·연구원 / 벤처기업CEO (%) : ('07) 12.4% → ('10) 8.8% → ('14.4) 8.0%

2 (투자부문) 자금조달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

가. 엔젤투자

□ **(실적)** '13년도에는 **엔젤투자자(또는 엔젤클럽)의 투자실적(99개)**에 대응하여 **114억원 매칭 투자 실시**

○ 금년에는 엔젤투자에 대한 **소득공제를 대폭 확대**하고 **전문엔젤 제도를 도입**하는 등 **엔젤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**

* 엔젤소득공제 확대(조특법, '14.1) : (기존) 30% → (개선) 5천만원까지 50%
* 전문엔젤 도입(벤처법 개정 '13.12, 시행 '14.7) : 벤처투자 인정, R&D 연계지원

[투자 사례] 엔젤펀드 유치로 생산시설 확보하고 대형마트 납품 등 급속 성장

☞ 고압 무균즉석밥을 생산하는 H사는 '12년 창업하여 금융권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으나, '13.4월 엔젤펀드 4억원(2억+2억)을 투자 유치

☞ 투자금으로 생산시설 확보하고 대형마트 납품 성공 등으로 급속 성장
* (12년) 1.8억원 → (13년) 6.7억원 → (14년) 25억원(예상)

□ **(성과)** 엔젤클럽 결성 유도 등에 힘입어 **엔젤 등록자수**('12. 2,610명 → '14.4월 5,679명) 및 **엔젤클럽수('12. 58개 → '14.4월 103개)가 대폭 증가**

나. VC투자

□ **(실적)** 벤처대책 후속조치로 성장사다리펀드(2조원) 등 **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수립**하고 3월까지 **2.9조원의 펀드결성 완료**

○ 특히, '벤처창업투자센터('13.8월 개소)'를 통한 **외자유치펀드**(2.25억불) **조성**과 성공한 1세대 선배벤처가 참여한 **청년창업펀드(1천억원)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큰 의미**

* 벤처1세대 펀드 : 카카오 300억, 스마일게이트 300억, GD 300억, 한국정보통신 100억 등

구 분	계 획	조성 발표	결성 금액
성장사다리펀드	2조원	2조원('13.5월)	1.9조원
미래창조펀드	5천억원	6천억원('13.8월)	5,810억원
벤처1세대 펀드	1천억원	1천억원('13.4~12월)	1,000억원
우체국 금융활용 펀드	5백억원	5백억원('13.6월)	500억원
외자유치펀드	미확정	2,200억원('13.8월)	2,250억원
합계	2.65조원	2.97조원	2.86조원

□ (성과)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가 대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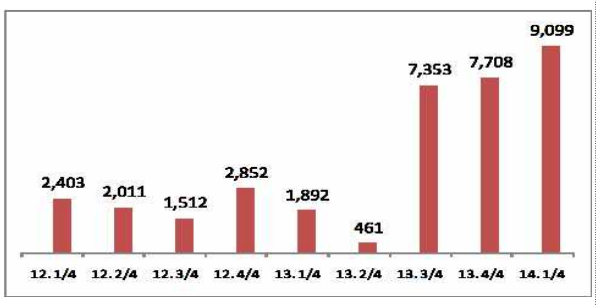
○ **(조성)** 1/4분기 신규 조성된 펀드는 **20개 조합 총 9,099억원**으로, 전년동기(7개 조합, 1,892억원) 대비 **381%증가**

* 현재 운용중인 펀드는 461개 조합 117,079억원 (신기술 조합 제외)
* 신규펀드조성액(억원) : ('10)17,089 →('11)22,860 →('12)8,778 →('13)17,4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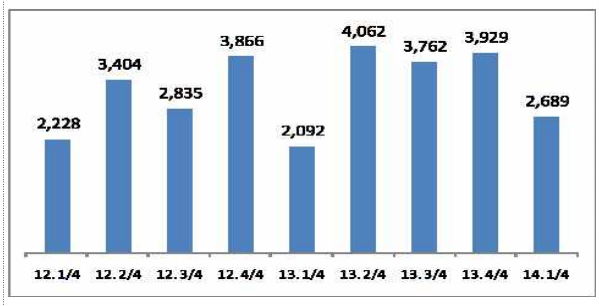
○ **(투자)** '13년도 투자실적은 **'01년 이후 최대치를 시현하였으며** 금년 1/4분기도 **2,689억원**으로 전년동기 (2,092억원) 대비 **28.5% 증가**

* 연도별 투자금(억원) :('10)10,910 →('11)12,608 →('12)12,333 →('13)13,845
투자금 증가율(%) : ('10)25.2% →('11)15.6% →('12)△2.1% →('13)12.6%

<벤처펀드 신규조성액(억원)>



<신규 벤처투자액(억원)>



* 벤처펀드 규모는 창투조합+한국벤처투자 조합 합계(신기술 조합은 제외)

○ **(재투자)** 일부 벤처기업은 **순수 민간자본으로 후배기업을 육성하는 펀드를 조성**하는 등 **재투자와 성공경험을 전수**하는 사례 증가

* 페이스메이커펀드('13.9), 더벤처스('14.1) 등

3 (회수부문) M&A 및 IPO 회수시장 활성화

가. M&A 활성화

□ **(실적)** R&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**기술혁신형 M&A 제도*를** 도입하고 M&A시 **기술가치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('14.1월)**

* 벤처기업·기술혁신형기업·R&D 5%이상 기업을 시가의 150% 이상으로 M&A

○ **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**하는 경우에도 **3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등 부담 완화**

○ 또한, M&A 중개기관을 확대하여 **「벤처 M&A 거래정보망」 기능을 강화**

* '중개기관'을 회계법인, 창투사, 해외컨설팅사 등으로 확대, 중개기관 '인증제' 도입

□ **(성과)** M&A거래 정보망을 통한 **정보 등록**('12. 752건 → '13. 1,202건) **및 거래성사**('12. 8건 → '13. 53건) **증가 추세**

* M&A 성사 건수 : (인수) 5건 → 28건, (합병) 3건 → 25건

○ **금년부터** 세제지원 등이 **본격 시행**됨에 따라 **M&A 활성화 성과는 점차 가시화**될 것으로 예상

[M&A사례] M&A거래정보망을 통해 기술혁신형 M&A 성사

☞ A사는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M&A거래정보망을 활용,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가공기술력이 있는 U벤처기업 지분 61.8%를 15억원에 인수('13.6)

☞ 인수금액은 U사의 순자산가치(8.6억원=13.9억원*61.8%) 대비 175%이어서 기술혁신형 M&A 요건 충족

나. IPO 활성화

□ **(실적)** 지난해 7월 **코넥스시장**을 개장하여 창업기업 특성에 맞게 **상장·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** (코스닥 64항목 → 코넥스 29항목)

○ 코넥스 기업에 대한 **투자제한을 완화**하고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하여 **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**

* 창투조합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(출자금의 20% 이내) 적용 제외 등
*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(0.3%)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창투사 등이 상장 2년이내에 코넥스 중소기업에 투자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

○ 금년들어 **'M&A 활성화 방안'**('14.3)과 **'기업상장활성화 방안'**('14.4)**을 추가로 마련**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

□ **(성과)** 코넥스 시장은 개설당시 대비 **상장기업 수**(21개 → 49개)와 **시가총액**(4,689억원 → 10,544억원)이 **2배로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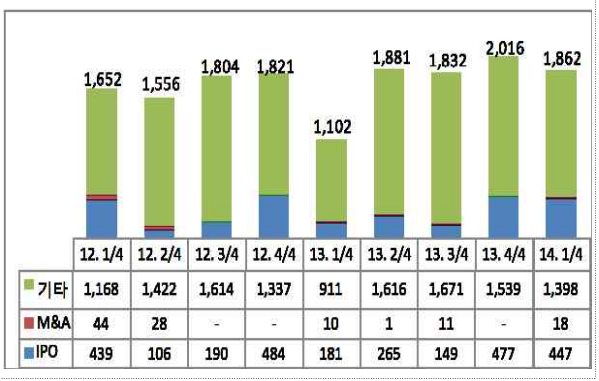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**자금조달 성공사례**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**코스닥 이전 성공사례**(아진엑스텍)도 발생

○ 금년 1/4분기 VC의 투자회수 현황은 **예년(최근 8분기 평균 1,708억원) 대비 9% 증가한 1,862억원**

* 유형별 회수('14.1/4, %) : IPO 26.0, M&A 0.8, 프로젝트 13.5, 장외매각 57.5, 기타 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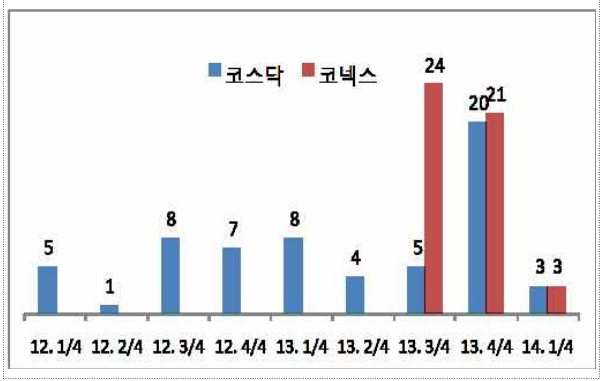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, 1/4분기 **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수(3개)**가 **전년 동기(8개)보다 감소**하고, **코넥스시장 신규 상장도 3개로 감소**

<벤처펀드 유형별 회수현황(억원)>



	12. 1/4	12. 2/4	12. 3/4	12. 4/4	13. 1/4	13. 2/4	13. 3/4	13. 4/4	14. 1/4
기타	1,168	1,422	1,614	1,337	911	1,616	1,671	1,539	1,398
M&A	44	28	-	-	10	1	11	-	18
IPO	439	106	190	484	181	265	149	477	447

<코스닥/코넥스 신규 상장 현황(개)>



4 (재기부문) 재도전 기회가 많은 환경 조성

□ **(실적) 연대보증 폐지 대상기업을 지속 확대**하고 **성실 실패 기업가에 대한 신속한 재도전 지원 방안을 마련**

○ **제3자 연대보증 면제**를 **제2금융권까지 확대**('13.7)하고, **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* 면제도 강화**('14.1월, '14.2월)

* ('14.1) 중진공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(4등급 이상 → 5등급 이상) → ('14.2) 신·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→ ('14.2~4) 산은·기은·신한·하나은행 등으로 확산

○ 재도전기업 전용의 **정책자금을 2.5배로 확대**('12, 200억원 → '14, 500억원)하고 지난해는 **244개 기업에 406억원** 지원

* 연도별 재창업자금(억원) : ('11) 124 → ('12) 200 → ('13) 400 → ('14) 500

□ **(성과)** 재도전 **지원정책 활용이 늘어**나고 **실패 부담이 감소**

○ 금년 1/4분기 기준으로 **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건수**는 작년에 비해 증가('13. 5건 → **'14.1분기 58건, 중진공)**

- 다만, **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**이나 **가산금리**(0.4~0.8%) **부담** 등이 **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**

* **연대보증 면제제도 미활용 사유 실태조사**('14.3, 중진공) : 기존 연대보증 활용 중(33.7%), 가산금리 부담(23.6%), 제도를 몰라서(21.3%) 순으로 응답

○ **63개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**(법원 공동)하여 **회생인가율이 상승**(30%→42%)하고 **소요기간**(10개월→6개월)과 **비용**(73%↓)도 **감축**

[재기사례]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신속한 회생계획인가 및 비용 절감

☞ 전기·소방공사 분야에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A업체는 주 거래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동 사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기 직면

☞ A업체는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 신청 7개월 만에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예납금(2000만원)도 환급받게 되어 경영정상화에 많은 도움

Ⅲ. 벤처·창업 업계 및 전문가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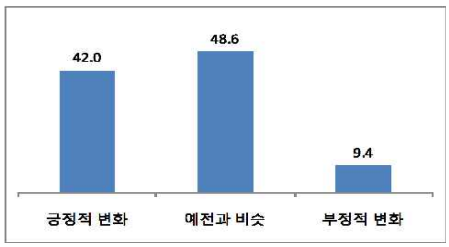
1 설문조사 결과

◇ **정책 수요자 4,000여 업체를 대상**으로 설문조사 실시('14.4월)

* 창업기업(500), 벤처기업(3,000), 엔젤투자자(100), VC(60), 재도전 기업(700)

가. 생태계 전반의 변화 평가

□ **(정책 체감도)** 벤처·창업 생태계가 **긍정적 변화** 중이라는 **응답(42.0%)**이 부정적 응답(9.4%)보다 높아, **정책 체감도는 높은 것**으로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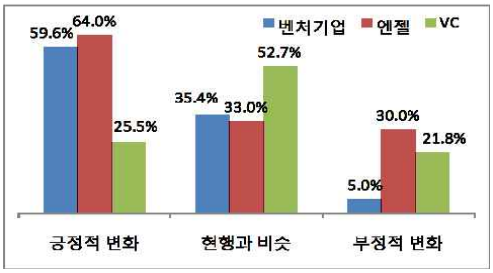


○ **정책대상별로는 VC(3.7점/5점 만점), 재도전기업(3.6점), 엔젤(3.5점),** 창업기업(3.4점), 벤처기업(3.3점) 순

○ 정책별로는 기업의 경우 **재도전 환경(3.6점)이, 투자자의 경우 엔젤투자환경(3.7점)이 많이 개선**된 것으로 평가

□ **(향후 기대감) 엔젤(64.0%), 벤처기업(59.6%)** 등은 향후 생태계가 **현재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**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

○ 반면, **VC의 52.7%는** 투자자금 확대에 따라 **우수 벤처·창업기업 발굴 어려움** 등으로 **향후 투자여건은 지금과 비슷**할 것으로 응답



나. 대상별 변화 모습

□ **(벤처기업)** 응답 기업의 '13년 **평균 매출 증가율은 30.5%**(12. 36.4억원 → 13. 47.5억원), **고용 증가율은 15.1%**(12. 14.6명 → 13. 16.8명)

○ **금년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**하는 것으로 응답
('14년 예상 매출 증가 31.8%, 고용 증가 10.1%)

○ 또한, **28%가 평균 4년이내 회수*를 희망**하고 **회수 금액의 85.5%(재창업 45.0%, 벤처투자 40.5%)를 재투자**하겠다고 응답

* 회수 희망기업 유형별 분포 : 코스닥 14.3%, M&A 11.8%, 코넥스 1.9%

<벤처기업 평균 매출액(억원)>



<벤처기업 평균 고용(명)>



□ **(엔젤) 53%가 투자확대 의향을 표명**하고 35%는 현행수준 유지

○ '13년 **평균 투자금액은 50백만원**으로 **'12년(13백만원) 대비 285% 확대**하였으며 **금년에는 1억원으로 확대**하겠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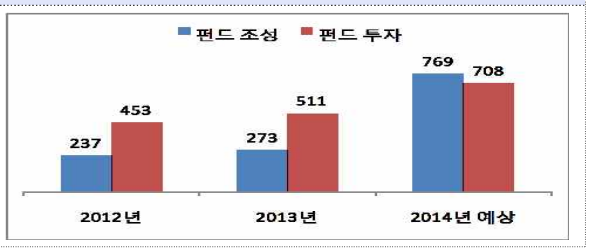
□ **(VC)** 벤처캐피탈 중 **76%가 투자확대 의향**, 20%는 투자를 축소할 계획으로 응답

○ VC별 평균 펀드 **조성금액('13. 273억원 → '14. 769억원)과 투자금액('13. 511억원 → '14. 708억원)을 모두 확대**할 계획으로 응답

<엔젤별 평균 투자액(억원)>



<VC별 평균 펀드 조성 및 투자금액(억원)>



2 분야별 업계 건의

* 설문조사, 현장조사,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

◇ 그 동안 **업계현안 대부분이 반영**되어 향후 생태계의 **긍정적 변화를 기대**하나, **판로지원 강화, 규제완화 및 회수시장 활성화** 등을 요구

□ **(벤처기업)**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**시장조성**과 우수 **청년의 벤처 유입 확대**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

분야	주요 건의 내용
판로 지원	○ 생산제품에 대한 **공공구매 확대 등 시장진출** 지원 ○ **대기업과의 공정경쟁** 환경 조성 등
제도 개선	○ **인력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5인이하 사업장**까지 확대 ○ **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가능 인력** 확대 (특성화고생 → 대학생) 등
투자 확대	○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는 **기술성 위주 투자 강화** ○ 투자자와 **만남 기회 확대** 등
홍보 강화	○ **홍보책자 발간, 설명회 개최, 벤처창업기업용 앱** 등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
재도전 여건 개선	○ **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실질적 추진** ○ **실패자에 대한 멘토링 강화** 등

□ **(투자자)**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**회수시장 활성화, 투자 이익에 대한 세제 지원** 강화 등을 요구

분야	주요 건의 내용
회수시장 활성화	○ **세컨더리 펀드 확충** ○ **코스닥 시장 활성화**(진입요건 완화 등) ○ **M&A 세제지원 강화** 등
제도 개선	○ **엔젤소득공제 금액 확대** ○ 창투사 등에 대한 **세제지원 일몰 연장** ○ 엔젤매칭펀드 요건완화 등 **규제완화**

□ **(재기기업)** 재기 **전용자금 확대** 및 **신용불량 관리기간 단축**, 정신무장을 위한 **재기교육 강화** 등을 요청

분야	주요 건의 내용
자금 지원	○ 재기기업 **전용 자금 확대**(현행 500억원) ○ **자금 상환기간 연장** 등
신용 회복	○ **신용불량 관리기간(5년) 단축** ○ 신용회복 기회 확대 등
교육 강화	○ 도전의식 제고 등 정신무장을 위한 **교육 강화** ○ 재기분야에 맞는 **전문 멘토링 연계** 지원 등

□ **(전문가)** 연기금 활용 등을 통한 **회수시장 활성화**, **벤처확인제도**의 우수기술 선별력 강화, **스톡옵션 회계처리 개선** 및 최저 발행가 제한 완화 등 **인프라 확충** 필요

분야	주요 정책 제안
회수시장 활성화	○ **연기금 pool을 활용한** 코스닥 투자 활성화 필요 ○ **M&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** ○ **코넥스시장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** ○ **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**
벤처확인 제도 개편	○ 벤처확인제도의 **우수기업 선별력 강화** ○ **창업초기 기업의 벤처진입 원활화** 등
스톡옵션 활성화	○ 스톡옵션 **회계처리 기준 변경**(비용처리 → 자본조정) ○ **스톡옵션 규제완화**(최저 발행가 제한 완화 등)

Ⅳ. 향후 조치 계획

□ 입법 지연 과제* 등에 대한 **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**하는 등 **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**하는 한편 **성과 확산에 역점**

*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(공정거래법), 크라우드펀딩 도입(자본시장법)

○ **(펀드투자) 그간 조성된 펀드가 조속히 투자**로 실현될 수 있도록 **전국순회 설명회** 등 VC와 기업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 (연중)

* **(투자 사랑방, 월1회)** VC와 1:1 투자상담, **(엔젤투자마트, 월1회)** 엔젤·VC 등 대상 투자유치 IR, **(VC 투자로드쇼, 연4회)** VC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

○ **(정책홍보)** 벤처창업 생태계의 **긍정적 변화 모습, 우수사례 등 개별 사례 중심의 기획홍보를 통해 정책성과 확산** ('14.6~)

- **창업오디션 프로그램** 등을 **제작·방송**하고 창업·성장 단계별 **'이야기가 있는 성공사례'를 발굴**하여 **책자 또는 동영상 제작·배포**

* 개별과제 추진 시에도 보도자료, 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 강화(연중)

- 아울러, 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을 손쉽게 휴대·활용할 수 있도록 **포켓북 및 모바일 e-Book** 제작·배포 ('14.6~)

□ 설문조사, 현장점검,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개선과제는 **선순환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방안을 강구**

○ **(창업)** 벤처를 해본 사람이 창업기업을 선별토록 **전문엔젤제도를 운영**('14.7)하고 **벤처확인제도도 기술성 평가 중심**으로 개편('14.6~)

* 전문엔젤 : 1억이상 투자실적과 창업벤처 활동 경력이 있는 자
* 벤처확인기준의 기술성 평가 확대, 기업규모별 R&D비율 차등화 등

-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**기술개발 제품의 시장창출 방안** 마련

* 개발제품 공공조달 시장 및 민간시장 진출 확대, 기술제품 판로 플랫폼 확충, 기술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

- 우수 인재 벤처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**스톡옵션 회계처리 기준 변경, 규제완화 방안** 등을 전문가 용역 추진('14.5~)

○ **(투자)** 旣 발표된 **엔젤소득공제 확대(15백만원까지 100%)를 차질 없이 추진**하면서, **엔젤매칭펀드 요건완화** 등 건의사항 검토

- 성공한 선배 벤처의 **재투자 펀드 확대**('13. 1,000억원 → '14, 1,000억원 추가) 조성

- **외자유치펀드(목표 1억달러) 추가 조성을** 위해 중국에 **'벤처창업 투자센터'**('14.6)**를 설립**하고 투자자금을 유치

- 더불어, 미국 및 중국 등 해외 우량 VC와 공동으로 **한국형 요즈마펀드 500억원**('15년까지 총 2,000억원) 신설

* 한국형 요즈마펀드 : 국외 및 국내 VC가 공동으로 펀드 운영, 인센티브 제공

< 외자유치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('14.3말 기준) >

☞ (조성) 美 실리콘밸리 VC와 2개 펀드 2.25억불 조성

☞ (투자 실적) 22개사 5,317만불 투자,
한국기업 10개사 3,407만불(전체 투자액의 64.1%, 금액기준)

○ **(회수)**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('14.4) 추진 등에 따른 **회수시장 변화를 모니터링**하고 **필요시 보완책 마련**

-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**세컨더리 펀드*를 확대**하고, 창투사의 창업기업 **M&A 투자시 의무투자 실적****으로 인정 검토

* (세컨더리 펀드 목적) 엔젤 구주 인수 및 LP 지분 유동화 등

** (현행) 창업자, 벤처기업 등의 신주투자, 엔젤 보유 구주투자 → (추가) 창업기업 M&A 투자

○ **(재도전) 일반은행**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**참여 확대를 유도**하고 **재창업자금 확대**('14. 500억원 → '17. 1,000억원) 등 추진

-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'재도전 지원 심의위원회'에서 지원 결정되면 신규 보증하는 **재도전 특례보증 도입** ('14.6, 지역신보)

첨부 | 벤처창업 실태조사 결과 통계

□ 정책 체감도

벤처창업 정책	벤처기업	창업기업	투자자	평균
벤처창업 **생태계 전반**	3.3	3.4	3.5	3.4
창조경제타운, 이스라엘식투자보육시스템 등 **창업지원 환경**	3.2	3.3	3.6	3.4
엔젤소득공제 100% 확대, 전문엔젤 도입 등 **엔젤투자 환경**	3.3	3.4	**3.7**	3.5
성장사다리펀드(3조원), 미래창조펀드(6천억) 등 **VC투자 환경**	3.3	3.3	3.6	3.4
기술혁신형M&A 법인세 10%감면, 증여세 면제 등 **M&A 환경**	3.4	3.3	3.5	3.4
코넥스시장 신설,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 등 **IPO시장 환경**	3.3	3.3	3.4	3.3
재투자시 양도소득세 납부 이연, 재투자펀드 조성 등 **재투자 환경**	3.3	3.4	3.4	3.3
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, 재창업자금 지원 등 **재도전 환경**	**3.6**	**3.7**	3.6	**3.6**

□ 벤처기업 매출 및 고용 증감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 예상	비고
매출액 (억원)	36.4	47.5	62.6	31.8% 증가
종업원수 (명)	14.6	16.8	18.5	10.1% 증가

□ 엔젤 투자 실적 및 계획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 예상	비고
총 투자 기업수 (개)	0.32	0.54	1.71	216.7% 증가
총 투자 금액 (억원)	0.13	0.50	1.01	102.0% 증가

□ VC 펀드 조성 및 투자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 예상	비고
펀드 조성 금액 (억원)	237	273	769	181.7% 증가
펀드 투자 금액 (억원)	453	511	708	38.6% 증가